

## 본인만의 강/장점

### [다양한 툴 활용과 빠른 흡수력으로 성취하다]

저의 강점은 다양한 디자인 툴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새로운 도구와 개념을 빠르게 습득해 결과물로 연결하는 역량입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3D 모델링, 영상 편집 등 폭넓은 툴을 학습해왔고, 실무에서는 배너, 아이콘, 영상 등 시각적 요소 제작을 맡아 결과물로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툴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디자인의 의도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입사 후에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프로젝트 요구에 맞는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 배움과 노력

### [끊임없는 학습과 실습으로 표현력 강화]

산업디자인학과 전공 과정에서 포토샵, 3D 프로그램,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배우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접적인 산업디자인 업무를 맡지는 않았지만, 툴 활용 능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요 시각 자료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부족함을 느낀 UI/UX 영역은 독학과 실습을 통해 보완했고, 특히 디자인 결과물이 단순히 '예쁜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고민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디자인을 통해 가치를 전달하는 실무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 본인만의 목표(포부)

### [사용자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디자이너]

앞으로는 단순히 시각적 완성도에 머무르지 않고, 사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은 브랜드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직관적인 시각 언어와 안정적인 전달력을 갖춘 디자이너로 성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을 경험한 디자이너로서, 협업 과정에서의 소통 장벽을 줄이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회사의 브랜드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조직과 사용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디자이너가 되고자 합니다.